완도군 "섬 주민 원하면 어디든 간다"

주택 개보수·가전제품 수리 등 섬 생활불편 개선 정비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호응

"주민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달려 갑니다."

완도군이 20인 이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섬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추진한다.

작은 섬 사업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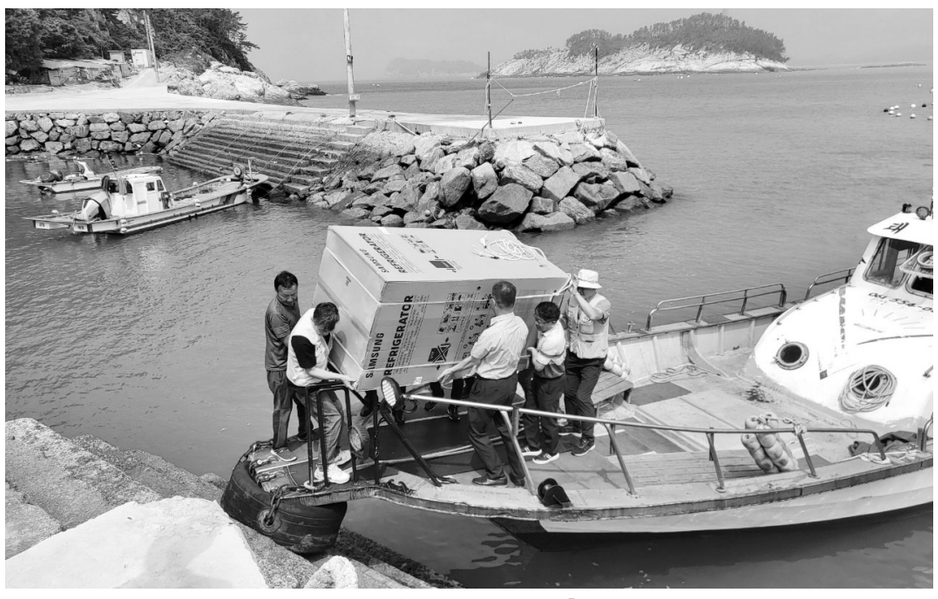
올해 사업 대상으로 금일 다랑도와 노화 장사도 등 4개 섬이 선정됐으며 지난 9일 금일 다랑도에서 첫 번째 사업이 진행됐다.

금일 다랑도는 금일읍에서 개인용 선박으로 30분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16가구, 2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완도군은 이날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도배, 장판, 가전 수리 및 교체 작업을 펼쳤다.

다랑도의 한 주민은 "그동안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동시설이 노후화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줘 한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노화읍 장사도 등 나머지 3개 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생활여건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금일 다랑도를 찾아 주민에게 배달할 가전제품을 옮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이기석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 섬들 위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작은 섬들이 소외됐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아, 사랑해" 고고송 인기몰이

해남 공무원들 출연 고향사랑기부제+고구마 홍보

해남군이 '삼SONG'에 이어 '해남고고송'으로 해남 알리기에 나섰다. 홍보 영상에는 청년 공무원들이 출연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해남형ESG와 관광지, 해남배추를 주제로 한 '삼SONG'을 제작한데 이어 올해는 해남고향사랑기부제와 해남고구마의 '고'를 모아 만든 '고고송'을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해남고향사랑기부제송은 해남군청의 젊은 공무원들이 출연해 땅끝탑, 공룡박물관 등 대표명소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남아, 사랑해"를 외치며 발랄한 율동과 함께 해남고향사랑 기부 방법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을 쉽고 밝은 멜로디에 담았다.

'해남고구마송'은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해남배추송'의 두 번째 버전으로, 해남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는 톡톡 튀는 가사를 중독성 있는 트로트 리듬에 실었다.

해남고구마송 영상에는 해남배추송에 출연한 공무원이 다시 나와 한층 물오른 연기력을 과시했다.

해남군 고고송은 해남군 누리집(https://www.haenam.go.kr 열린군정) 군정자료실과 해남군 블로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군에서도 분야별 CM 송을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지정하고 각종 축제, 행사, 공연, 농산물 판촉행사 등에도 널리 활용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해남군 홍보 삼SONG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 해남군 정책, 관광, 유통 분야를 재미있고 쉽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 제작한 해남군 홍보 고고송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제작한만큼 다시 한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청 젊은 공무원들이 땅끝탑, 공룡박물관 등 대표명소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해남고향사랑기부제송을 제작했다. 해남고향사랑기부제송 영상 캡처. 〈해남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와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아너소사이어티 신안군 1호 김웅기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제막식이 열렸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제막식

호주면세점 김주원 대표 가입식도

신안군이 최근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제막식과 호주면세점 김주원 대표의 신안군 5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 제막식은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 아너소사이어티 신안군 1호 자은운수 김웅기 대표, 3호 제일환경 이승준 대표, 4호 바다운수 이송운 대표가 참석했다.

명예의 전당 제막 퍼포먼스와 함께 신안군 아너 5명에 대한 현판 등록을 거행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다짐했다.

신안군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의 기부정신을 기리고 회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전남 시·군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을 조성, 대외적 기부문화 확대와 지역사회 나눔 정신 정착을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며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안군 5호 아너 김주원 대표는 "비금에서 약방을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신 작고한 부친을 생각하며 평소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이렇게 고향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베푸는 삶에 노력을 더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은 앞으로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적극적인 유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복지사업을 꾸준히 전개시켜 다같이 잘사는 모두가 행복한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마약김밥 표현 안돼요"

영광군, 현장 지도·홍보 나서

영광군이 최근 마약관련 범죄예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식품이나 상호명에 마약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활동〈포스터〉에 나선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식품과 상호명, 메뉴에 포함된 마약관련 용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지도와 홍보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최근 5년 사이 20대와 청소년 마약사범이 4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떡볶이나 김밥 등 식품에 마약용어가 남용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다.

마약을 친숙하게 여기고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마약'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장관상'

차별화 된 에너지·환경시책으로 탄소중립 강화

목포시가 '2023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자원분야 종합 일간 경제신문사인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매년 주최하는 시상 행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목포시는 '탄소중립 2030 목표설정'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목포시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사업,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측정소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도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에너지절약 운동 전개와 탄소 중립시대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및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목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